

이병헌 배우론

〈미스터 션샤인〉을 중심으로

A Star Persona of Lee Byung-hun

Focus on the drama 〈Mr. Sunshine〉

주 저 자: 김건우 (Kim Geon Woo)

광운대학교 문화산업학과
hoohoots@naver.com

Abstract

Lee Byung-hun has been a HIGTEEN star since he was in his 20s and is still an influential actor in his 40s. Although he was considered unable to make it through a scandal in 2014, He regained his fame after appearing in the drama <Mr. Sunshine> Nevertheless it's difficult to find any researches about him. The paper analyzed Lee's acting style and the film's camera production, which appear to be common in Lee's starring work. Unlike actors with similar careers. Lee Byung-hun shows a performance that is not exaggerated. His performance does not exasperate or shed tears. He swallowed anger and showed tears in his one eyes. When expressing feelings of sadness, he only shows his facial expression. His acting traits are best suited for close-up. His tear acting conveys sympathy to the audience. These acting traits are very suitable for the melodrama genre. So even at the age of his late 40s, Lee is still a melodramatic actress. He also has star Persona as an action star. Therefore, after entering Hollywood, he has expanded to become a noir genre actor.

Keyword

Lee Byung-hun, Face image, Acting style, Star persona, Melo, Mr. Sunshine, action

요약

이병헌은 20대부터 하이틴 스타였고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향력 있는 배우이다. 그는 2014년 스캔들로 재기불능이라 평가되었지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다시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은 이병헌의 출연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의 연기 스타일과 영화의 카메라 연출을 분석하였다. 이병헌은 비슷한 커리어의 배우들과 다르게 과장되지 않은 연기를 보여준다. 그의 연기는 분노를 내지르거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는 분노를 삼키고 눈에 눈물이 맺혀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표정만으로 드러낸다. 그의 연기특징은 클로즈업에 가장 적합하고 그의 눈물연기는 관객들에게 연민을 전달한다. 이런 연기특징은 멜로 장르에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이병헌은 4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든 여전히 20대 여배우와 멜로 연기가 가능한 배우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액션배우로서 스타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다. 그의 연기특징이 액션과 만나면서 그는 다른 동양인 배우들과 달리 할리우드 진출 이후 느와르 장르 배우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목차

1. 서론

- 1-1. 들어가며
- 1-2. 배우론

2. 이론적 배경

- 2-1. 이병헌의 이력
- 2-2. 스타 페르소나

3. 이병헌의 스타 페르소나 분석

- 3-1. 클로즈업으로 재현되는 감정을 삼키는 눈물 연기
- 3-2. 로맨스가 가능한 판타지 캐릭터
- 3-3. 액션이 가능한 배우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응복-김은숙 트릴로지’¹⁾의 마지막편인 <미스터 션샤인>은 이병헌을 캐스팅하면서 방송시작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송중기-공유를 잇는 그 마지막 남자 주인공은 이병헌이었다.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극중 배역인 ‘유진 초이’는 결과적으로 이병헌 말고는 그 누구도 맡을 수 없는 역할이었다. <미스터 션샤인>은 캐스팅 당시 이병헌의 사생활 문제로 방영 전부터 우려가 컸다.

김은숙 작가는 우연히 이병헌과 김태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고 이병헌과 김태리 조합을 생각해냈다고 한다.²⁾ 김은숙 작가의 머릿속에서 유진 초이와 고애신의 모습이 두 배우였던 것이다. 이병헌이 유진 초이로 선택된 이유에 대해 짐작해보자면 그의 할리우드 진출의 커리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작가는 <미스터 션샤인>을 “신미양요 때 의병이었던 남자 주인공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훗날 자신을 버린 조국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³⁾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배우도 아닌 한국에서 자력으로 할리우드로 진출한 이병헌이기에 가능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병헌을 하나의 캐릭터로 가정하고자 한다. 배우 이병헌의 연기력이나 연기 방법론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배우의 연기를 평가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연기력이 뛰어나다’, ‘연기가 좋다.’ 정도의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뿐이다. 하지만 배우 자체를 하나의 캐릭터로 본다면 그 배우가 맡았던 배역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영화마다 비슷한 배역을 연기하다 보면 타입이 되어버린다. 여러 영화를 하는 동안에 배우들은 독특한 페르소나, 혹은 공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어떤 경우 배우는 캐릭터와 자신의 속성이 너무나 잘 어우러진 특정 캐릭터와 연상하게 된다.”⁴⁾

‘유진 초이’라는 극중 주연 캐릭터는 기존 이병헌이 연기했던 배역과 상당한 유사점들이 있다. 엘리트 캐릭터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눈물 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요소들이 이병헌이라는 캐릭터이자 배우의 특징이 될 것이다. 이병헌은 황정민, 최민식, 송강호 등의 동시대의 배우들이 아버지 역할, 소시민 역할로 영화계를 견인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액션, 로맨스, 코미디 등 다양한 연기 폭을 보여주는 배우다. 여기에 2014년 사생활 스캔들로 인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지만 <내부자들>을 통해 부활하고 <미스터 션샤인>으로 안방 민심까지 되돌린 저력이 있는 배우다. 그럼에도 이병헌의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하다. 본 연구는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병헌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희소성과 특징이 있는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1-2. 배우론

배우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관객 입장에서 감독보다 가장 많이 접하는 존재가 배우임에도 영화는 감독의 주체로서 존재할 뿐 배우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의 연기력을 논한다면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연기론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연극의 경우 배우의 온전한 연기와 캐릭터가 텍스트를 지배하지만 영화는 편집과 카메라 구도, 컷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영화에서 중요한 존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가령 대중들은 배우를 통해 영화를 본다. 감독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영화 속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은 배우이기 때문’⁵⁾이다.

그렇다면 배우론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배우론으로 검색되는 논문은 정말 한정적이다. 가장 최근으로 강성률(2018)⁶⁾의 한석규 배우론이 검색된다. 한석규의 스타 페르소나가 그의 전성기인 시대와 통하는 것에 주목한다. 김종국(2018)⁷⁾은 한 배우를 조명하기보다 연구방법에 대해 집중하는데 그 역시도 현재 학계가 배우에 대해 잘 연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어일선, 정민영(2013)⁸⁾의 경우는

1) 이응복 연출, 김은숙 극본인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세 작품을 말한다. 판타지적 존재인 남성과 평범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로맨스 작품이다.

2) 이인혜, 김은숙 신작에 ‘이병헌-김태리’ 캐스팅된 이유, 위키트리, 2017-07-06

3) 정덕현, 김은숙 작가, 왜 논란 감수하고 이병헌을 캐스팅했나, 엔터미디어, 2017-06-24

4) 존 벨튼, 이형식 역, [미국영화 미국문화], 경문사, 2008, p93

5) 강성률, 한석규 배우론. 씨네포럼, 2018. 4, vol. 29. pp.38-39

6) 강성률, Ibid

7) 김종국, 브레히트의 게스투스 영화연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논문지, 2018. 1, vol.12, No.1

박중훈의 연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담은 코미디’, ‘표현 방식의 백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서술방식이 연구자가 갖춰야할 객관적 거리두기와 맥락이 같은가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인숙(2016)⁹⁾ <달콤한 인생>, <악마를 보았다>를 통해서 이병헌을 남성적 페르소나와 동시에 눈물을 흘리고 여린 여성적 페르소나를 갖춘 배우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병헌의 눈물이 과연 ‘여성적’이라는 젠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본 연구는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라는 캐릭터가 이병헌이 그동안 연기한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유진 초이의 여러 요소들이 이병헌의 기존 영화 배역과 닮은 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이병헌의 연기 특징이라고 결론짓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이병헌의 이력

KBS 14기, 1991년에 데뷔한 이병헌은 1992년 KBS <내일은 사랑>으로 청춘스타가 되었다. 그리고 SBS <울인>의 성공으로 일본 진출에 성공한다. 영화에서도 <공동경비구역 JSA>와 <번지점프를 하다>로 성공을 했다. <누구나 비밀은 있다>, <쓰리 몬스터>, <달콤한 인생>, <그해 여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하 <놈놈놈>), <나는 비와 함께 간다> 그리고 할리우드 데뷔작 <G.I. Joe: 더 라이즈 오브 코브라> 실사 영화까지 출연하는데 전체적으로 <놈놈놈>이 손익을 간신히 넘긴 것을 제외하면 흥행에는 실패했다. 그런 이병헌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된 것은 KBS2 드라마 <아이리스>였고,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200만을 넘기며 천만 배우가 되었다. 그 후 <G.I. Joe: 리탈리에이션>, <RED2>,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까지 할리우드 영화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자기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2014년 스캔들이 터지면서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다. 2015년 간신히 개봉한 영화 <첩녀, 칼의 기억>은 43만 명이라는 초라한 스코어로 막을 내렸다. 스캔들 이후 복귀 작의 처참한 스코어로 이병헌의 끝이 자명했었다. 그러나 이병헌은 <내부자들>로 완벽하

게 부활한다. 이후 <밀정>, <매그니피센트7>, <마스터>, <싱글라이더>, <남한산성>, <그것만이 내 세상> 등 제작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꾸준히 영화에 출연한다. 그리고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최고시청률 18.1%¹⁰⁾를 기록하며 안방 대중까지 다시 사로잡았다. 드라마 성공은 이병헌의 주홍글씨를 완벽히 지웠다고 평가 할만하다. 스캔들 문제로 영화의 성공이 있어도 드라마 시작부터 이병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유효했고 역사왜곡문제와 같이 겹치면서 드라마 초반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악재를 극복하고 드라마는 흥행에 성공해 지상파도 꺾었다.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극장을 찾는 관객에 비해 더 불특정하고 많은 집단이다. ‘대중’이라는 의미에 더 부합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언제나 채널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민심을 돌리기에 쉽지 않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대중이 이병헌을 완벽하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이병헌은 영화배우로서 천만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며 드라마 배우로서도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여전히 흥행보증 수표인 배우이다. 한편으론 가수로서 앨범도 냈으며, ‘본사마’라는 한류스타, 할리우드에 무사히 안착한 동양인 배우라는 커리어가 존재한다. 이병헌은 연기력과 스타성에서 모두 정상급 커리어를 쌓은 입지적 존재라 볼 수 있다.

2-2. 스타 페르소나

스타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첫째는 실제 인물(the real person)이고, 둘째는 그 실제 인물이 연기하는 특정한 캐릭터(the character), 즉 릴 속의 인물 (the reel person)이다. 그리고 셋째는 앞의 두 가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양자의 융합으로 형성되는 스타 페르소나(The star's persona)이다. 그러니까 실제 배우가 영화에서 매번 특정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형성된 스크린 상의 이미지가 곧 스타 페르소나가 된다.”¹¹⁾ “스타 페르소나는 배우가 영화에 출연함으로써 스타로서 경력을 쌓아가며 나타나는 스크린 상의 집합적인 개성이다. 스타 페르소나 또는 스크린 상의 개성은 수많은 영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집합적 창조물이며 한 편의 영화에서 보이는 일회성 연기보다 더 대단하다. 특정 연기가 스타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

8) 어일선, 정민영. 배우 박중훈의 연기 패턴 분석 및 인물 표현 방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12, Vol.13, No.12

9) 서인숙, 배우 이병헌의 페르소나 연구, 기호학연구, 2016, Vol.47

10) 닐슨 전국 시청률

11)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아모르문디, 2018, pp.33-34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에게 스타 페르소나가 존재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¹²⁾

스타페르소나는 다시 개성 있는 스타(Personality Star)와 캐릭터 스타(character Star)로 나뉜다. 개성 있는 스타는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늘 동일한 인물 유형을 갖고 있는 스타를 말한다. 캐릭터 스타는 영화마다 각기 다른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스타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다. 두 가지 모두 배우에게 양립하는 요소이며 배우마다 특정부분이 더 강하게 발휘 될 수 있다. 또한 작품과 배역마다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¹³⁾ 예를 들어 개성 있는 스타가 작품에 따라서 캐릭터 스타로서 면모를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병헌의 경우 <내부자들>의 안상구가 해당된다.

이병헌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는 대개 “연기로는 갈 수 없다.”¹⁴⁾이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연기 외에는 흠잡을 구석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이병헌의 스캔들로 이어진다.

서인숙은 이 스캔들을 “이병헌이 영화 안과 동일하게 영화 밖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에게 매혹적이며 사랑받는 남성이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다시 한 번 환기 시켜주는 일화”¹⁵⁾로 평가하며 “이병헌은 ‘이 시대의 연인’이라는 스타 카리스마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배우이다.”¹⁶⁾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병헌이 다시 일어 서기까지 했던 작품들인 <내부자들>, <밀정>, <마스터>, <싱글라이더>, <남한산성>, <그것만이 내 세상>를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이병헌은 철저하게 로맨틱 가이로서 면모를 감춘 행적을 보였다.

<내부자들>을 보면 극중 배역인 안상구는 이병헌이 기존에 유지했던 젠틀하고 스마트한, 또는 로맨틱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진 정치강패였다. 심한 곰솔머리에 등을 가득 채운 문신을 했다. 또한 역시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교양이 부족한 행위와 다소 부족한 어휘를 쓰는 캐릭터였다. 이병헌은 스캔들로 무너진 개성

있는 스타의 면모를 완전히 지우고 캐릭터 스타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물론 <올인>, <아이리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흥행작을 보면 이병헌은 로맨틱 가이로서 페르소나를 주요하게 사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2014년 스캔들 이후 그가 <미스터 션샤인>으로 복귀하기까지 출연한 영화들을 살펴보면 그의 스캔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 이병헌의 스타페르소나 분석

3-1. 클로즈업으로 재현되는 감정을 삼키는 눈물 연기

<미스터 션샤인> 4-5화에서는 유진 초이가 부모의 원수인 김희성의 부모를 찾아가는 씬이 있다. 유진 초이는 김희성의 집으로 들어가 부모에게 충구를 겨누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부모의 죽음에 대해 다그친다.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유진 초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채 천천히 당기고 유진 초이는 화를 내기는커녕 서서히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4화 엔딩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씬은 희성이 애신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교차편집으로 함께 보여주고 비극적인 음악을 깔아 등장인물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됨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엔딩으로서 감정을 폭발시켜도 괜찮은 부분이다. 그러나 이병헌의 연기는 좀처럼 감정을 내지르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달콤한 인생>에서도 똑같은 연기를 볼 수 있다. 영화 후반부 선우가 보스인 강 사장을 찾아가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 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선우는 자신을 내친 이유를 묻기 위해 찾아갔고 복수를 위해 충구를 겨누는 상황에서 분노가 아닌 울먹이며 억울한 말투로 말한다. 클로즈업에 잡힌 선우의 눈가는 눈물이 맺힌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도 이병헌은 같은 연기를 보여준다. 그가 분한 김조하라는 캐릭터는 기존에 이병헌이 맡았던 젠틀하고 엘리트한 이미지와 다른 인물이다. 어릴 적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구타에 못 견디고 동생과 집을 나갔다. 김조하는 왕년에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오갈 곳 없이 살아가는 캐릭터다.

12) Stephen Prince, [Movie and Meaning : An Introduction to Film], Allyn and Bacon, 1997,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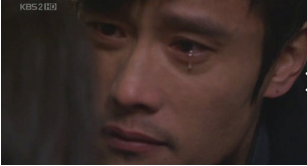
13) 김시무, 앞의 글, pp.87-104

14) 이병헌에 관련된 기사들의 대부분 댓글에 달리는 표현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180827n11966>

15) 서인숙, Op. cit, p137

16) 서인숙, Op. cit, p138

[표 1] 이병헌의 눈물 연기 장면¹⁷⁾

작품명	눈물 연기 장면
〈미스터 션샤인〉	
〈달콤한 인생〉	
〈그것만이 내 세상〉	
〈남한산성〉	
〈번지점프를 하다〉	
〈아이리스〉	

김조하는 아버지의 폭력이 트라우마로 남아 똑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영화 후반, 감옥에 있는 아버지와 부자의 연을 끊자고 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서도 이병헌의 연기는 클로즈업과 눈물이 맺

힌 채 화를 삼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칠고 폭력적인 캐릭터 설정에 비해서 감정 절제가 된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장면이 전환되기 전 약 10초 정도 김조하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라고. 엄마 옆에 얼씬도 거리지 말라고. 내가 가만히 안 놔줄 테니까!” 라는 부분에서 감정이 다소 격해지는데 그럼에도 고향을 지르거나 격양된 행동을 하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는, 오직 표정만으로 화를 표현한다.

그의 이런 연기를 더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은 〈남한산성〉이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주화론자인 영의정 최명길과 척화론자인 좌의정 김상헌의 대립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병헌은 이 작품에서 최명길 역을 맡았고 김상헌은 김윤석이 맡았다. 김상헌은 척화론자로서 청과 싸우자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으로 연성을 높이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반면 최명길은 임금에게 충언을 할 때나 신하들이 최명길을 궁지에 몰아세우는 위기 상황에도 감정의 변화가 없다. 화법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또한 인조에게 상소를 올릴 때도 김상헌에 비해서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올린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최명길의 감정이 서서히 드러난다. 인조가 최명길에게 청에게 보낼 답서를 전할 때 최명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청에게 답서를 보내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마지막 인조가 삼계구고두례를 하는 장면에서 입을 벌리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우는 연기 역시도 과장된 연행 없이 얼굴, 표정하나로 표현한다. 이병헌의 초기 작품인 〈번지점프를 하다〉에서도 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 이병헌은 여현수의 품에 얼굴을 묻고 톤이 올라간 격양된 목소리로 흐느낀다. 지금의 감정 연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배우의 신체적 표현 중 얼굴표현은 언어적인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 그중 특히, 눈은 눈동자의 흔들림, 눈에 고이는 축축한 눈물, 눈의 각도와 템포 등, 배우는 눈으로 수많은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있다.”¹⁸⁾

이 말은 이병헌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쌍꺼풀 짙은 큰 눈에 눈물이 맺히는 연기는 이병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페르소나다. 송강호, 황정민, 최민식, 설경구, 류승룡 등의 경우, 슬픈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입을 벌려 흐느끼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표정 외에 여러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병헌의 경우 클로즈업 안에서 부동의 자세로 감정을

18) 김연주, 영화 매체적 특성에 따른 연기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60

17) 각각 영화에서 캡처

다 소화해낸다. 이병헌의 눈빛 연기는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내고 관객들에게 연민을 느끼도록 하는 연기를 보여준다. 서인숙은 “이병헌이 표현하는 이런 과잉적인 눈물은 관객이 보기에 나약함으로 인식할 여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¹⁹⁾라고 말한다. 이병헌의 눈물 연기가 과잉 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동의하기 힘들으나 그의 ‘클로즈업 감정연기’가 관객에게 전달하는 감정에는 동의한다. 본 연구자는 이병헌의 이 눈물 연기 패턴에 대해 ‘이병헌의 클로즈업 감정연기’라고 잠정 짓고자 한다.

3-2. 멜로가 가능한 판타지 캐릭터

이병헌의 페르소나는 ‘이응복-김은숙 트릴로지’의 주인공들과 일치한다. 김은숙 작가는 판타지 남성을 설정하면서 로맨스를 형성한다. 초기작인 <파리의 연인> 보여준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구조를 그대로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사용한다. 다만 과거에는 재벌2세였다면 이응복 PD와 연출을 시작한 후부터는 주인공이 판타지적 존재로 설정된다. 미군이 인정하는 불사신 군인인 유시진 대위와 정말로 불사신인 도깨비, 그리고 일본 제국과 무력으로 맞붙는 미국 군인으로 이어진다. 그런 김은숙의 남성이 이병헌은 가능한 것이다.

이병헌은 비슷한 세대의 배우들 중에서 유일하게 판타지적 캐릭터를 지닌 배우다. 천만 영화의 출연한 배우 중 비슷한 또래의 배우들인 김윤석, 류승룡, 송강호, 설경구, 황정민, 최민식 등은 모두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속칭 ‘소시민적’ 연기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왔다면 이병헌은 오히려 후배 배우인 하정우 이정재, 원빈, 강동원 등과 비슷한, 아버지가 아닌 캐릭터에 익숙한 배우다. 이병헌은 “판타지적으로 상정된 영화 속 인물, 즉 사극의 왕이거나 할리우드의 암살자 혹은 정서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을 주로 맡아온 그다. 순수하거나 낭만적이거나 완벽하거나, 가상의 제련된 인물 같았던”²⁰⁾ 모습을 주로 보여줬다. 특히 오늘 날 이병헌을 만들어준 작품인 <울인>과 <아이리스>, <광해>를 생각해보면 이병헌이 그간 판타지적 인물을 소화했다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는 조선에 파견된 미군이다. 그는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노비의 신분이었다고

도망친 나라 미국에서는 당당히 미국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미국이라고 말하는 자다. 군인으로, 개화기 인물로서 유진 초이의 헤어스타일은 상투가 아닌 포마드 머리를 하고 있다. 유진 초이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판타지적 인물인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 땅에서 조선 조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미국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파국으로 향하는 조선과는 무관하다는 거리두기와 동시에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힘을 가진 판타지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스터 션샤인>의 초반부는 열강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나 무능하고 현실 감각이 없는 애신을 유진 초이가 지켜주는 구도로 갖춘다. 애신의 암살 현장을 덮어주고 미군의 뺨돌린 것을 눈감아주는 등, 자기 권한 내에서 애신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병헌, 김태리 두 배우의 물리적 나이 차이를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의 애정표현은 포옹 이상의 스킨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로지 대화와 표정 연기만으로 둘의 감정을 드러낸다. 8화에서 두 사람이 포옹을 할 때까지 그간 유진 초이는 애신에게 무관심하고 다소 쌀쌀맞은 태도를 일관하면서 한편으로 애신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미소를 간간히 보여준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이병헌의 클로즈업 감정연기’가 애신과의 로맨스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클로즈업은 멜로 장르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화 언어다. <국가의 탄생>에서 감독인 그리피스도 여성 주인공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근접 촬영한다. 인종차별과 여성의 사랑을 담기 위한 장치였다.²¹⁾ 또한 TV는 영화와 달리 클로즈업에 특화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TV 비율인 4:3은 클로즈업에서 좌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간이 최소화된다. 또한 텔레비전 영상의 크기는 영화 스크린에 비해 작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인물을 클로즈업하지 않으면 시청자보다 피사체가 작은 결과를 낳게 된다.²²⁾ 결국 <미스터 션샤인>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공통분모로서 클로즈업에 강한 이병헌이 자기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21) 배상준, [장르영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p13

22) 최원호, 텔레비전 매체의 클로즈업(close-up) 영상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31-34

19) 서인숙, Op. cit, p127

20) 이예지, [이병헌] 우직하게, 또 영민하게, 씨네21, 2015-11-23

3-3. 할리우드 진출, 액션이 가능한 배우

이병헌을 수식하는 표현 중 하나가 ‘아시아의 톰크루즈’²³⁾이다. 이병헌이 앞서 언급한 또래 배우들과 다른 점은 이병헌은 액션배우로서 페르소나가 있다는 점이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 초이가 왜 미국 군인으로 등장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는 1871년 신미양요 직후 조선의 노비 아이가 미국 군함을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 1898년 미서 전쟁 후 1902년 조선에 파견된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최초의 조미접촉은 1853년 1월 부산 용당포 앞바다에 이양선이 1대가 나타나면서 시작했다. 이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이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난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한반도 진출에 관심을 갖는다. 1860년대 프랑스와 함께 조선을 응징하고 조선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프랑스의 반대로 실패했고, 직접 교섭방법으로 신미양요에서 조선군 350명을 살해하고도 실패했다. 1880년 일본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이 역시 실패하였고 청의 중재로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다.²⁴⁾ 뿐만 아니라 미국은 1988년부터 1905년까지 조선에 4차례 군대를 파견 시킨다. 중요한 점은 모두 미국 공관 및 한양에 거주하던 미국인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했던 것이다.²⁵⁾ 구한말 미국 주둔이라는 사실이 일반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가능한 설정이다. 하지만 작중 미군이 보여준 행동을 구한말 조미 관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외교는 친일로 향했다. 러시아를 일본이 막아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맺었으며 을사늑약 당시 가장 먼저 조선과 단교했다.²⁶⁾

유진 초이가 굳이 미국인이어야 했다면 선교사, 기자, 의사로 등장시켜도 되었을 설정인데 그는 미국인이며 동시에 군인이었다. 외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소위 볼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투였고 한 인물의 권력과 능력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 군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미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일군을 처단해야하는 영웅적 소명을 심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배우 중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이병헌이다.

‘조선계(?) 미군’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영어에 능통해야하고 액션이 가능한 배우를 뜻한다. 이는 한국에서 이병헌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이다. 이병헌이 액션 장르에서 주목 받은 작품은 관객 수로 봤을 때 <놈놈놈>이다. 느와르 장르의 <달콤한 인생> 보다 먼저 개봉했지만 관객 수 110만으로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²⁷⁾ 서부극인 <놈놈놈>으로 봐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이병헌이 분한 캐릭터인 박창이는 후에 또 다른 서부극인 <매그니피센트 7>의 빌리 락스 캐릭터로 이어진다. 이병헌의 할리우드 진출 작품은 <미스컨덕트>를 제외하면 전부 액션장르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병헌은 암살자로 등장한다. 이병헌은 총을 쓰는 역할이 많았다. 총으로만 추려보면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달콤한 인생>, <놈.놈.놈>, <나는 비와 함께 간다>, <악마를 보았다>, <아이리스>, <RED2>,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까지 존재한다.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는 건 액션 장르에서 공간 보여준 이병헌의 이미지중 하나인 것이다. 실제로 <미스터 션샤인>의 액션은 대부분 애신과 구동매가 보여주지만 작품 초반부 유진 초이의 저격 쏜 시청자를 끌기 위한 필수 장치였고 이병헌은 익숙한 자기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3-1과 연결해서 논하자면 이병헌은 클로즈업을 장점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액션이 가능한 배우이다. 클로즈업은 액션 장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 기법이다. 하지만 이병헌의 영화를 보면 액션 영화임에도 그의 얼굴을 길게 담는 미디엄-클로즈업이 자주 등장한다. 오히려 풀샷을 지양하고 있다.

<G.I. Joe: 리탈리에이션>을 살펴보면 이병헌의 이장점이 할리우드에서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이병헌이 맡은 스톤 쉘도우는 주인공 스네이크 아이즈의 상대역이었다. 그러나 후속작인 <G.I. Joe: 리탈리에이션>에서 오면서 스네이크 아이즈보다 분량이 더 많아지고 가면으로 배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스네이크 아이즈와 달리 스톤 쉘도우는 가면을 벗었고, 상반신 탈의도 보여준다.

1980년대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같은 근육질의 보디빌더가 할리우드 액션스타로 성

23) 박영주, 존 추 감독 "이병헌, 한국의 톰크루즈...아시아 배우 할리우드 진출 길 열어", 중앙일보, 2012-12-13

24) 이상태,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7. 7, Vol 14, pp.160-187

25) 고승일, 연합뉴스, 美 구한말 한반도에 4차례 군대 파견, 2010-03-04

26) 최형익, [왜냐면] '미스터 션샤인'과 구한말 한미관계 왜곡, 한겨레, 2018-08-20

27) <달콤한 인생>은 후에 관객들 사이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공했다. 이들의 육체적 가시성은 영웅적 남성 정체성을 형상화하고 영웅주의와 건강미라는 의미였다.²⁸⁾ 아시아 액션배우가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배경에는 1966년 <그린 호넷>으로 시작한 이소룡을 뺄 수 없는 데 그 역시 언어와 인종의 문제로 마살아츠의 액션영화에만 한정되었다. 이후 성룡, 이연걸, 견자단으로 그 계보가 이어진다.²⁹⁾

액션배우로서 이병헌은 벌크 업(bulk up)된 고전적 할리우드나 중국계의 마살아츠가 가능한 액션배우도 아니다. 이병헌은 슈트와 총을 이미지로 살인청부업자, 총잡이 역할의 느와르 장르 캐릭터로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굳이 동양인이 아니어도 되는 배역을 맡아가고 있다. 이병헌이 액션을 자체를 잘하는 배우라기보다 클로즈업으로 담아내는 표정연기가 그를 액션 장르에 잘 어울리는 배우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병헌은 현재 한국 영화계를 견인하는 또래 남배우들과 비교했을 때 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최민식, 송강호, 황정민이 소시민, 아버지 역할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동안 이병헌은 멜로나 액션, 범죄로 향했다. 그럼에도 <광해>로 천만 관객에 들었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인 <내부자들>이 915만을 기록했다. 드라마에서도 <울인>, <아이리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흥행보증 수표였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은 2014년 스캔들을 완전히 극복한 작품이었다. 또한 꾸준히 할리우드에 진출해 액션배우로서 마살아츠가 아닌 느와르 장르에 출연하고 있으며 박중훈, 설경구, 최민식, 정지훈과 달리 단발성이 아닌 자기 입지를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이병헌의 가장 큰 장점은 클로즈업으로 담은 감정연기를 들 수 있다. 이병헌은 분노나 슬픔을 내지르는 연기가 아닌 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감정 연기에서 배우의 어깨까지 카메라를 바짝 당기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병헌은 다른 배우들이 감정 연기 시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부동의 자세로 얼굴 표정만으로 감정 끌어올린다. 그런 그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전달하고 이는 그의 멜로연기로 이어진다.

배우 김태리와 물리적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정서적 교감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스킨십이 없었다. 그 흔한 키스신 하나 없이 그린 유진 초이와 고애신의 사랑에는 '이병헌의 클로즈업 감정연기가 있었다. 비극적 운명에 유진 초이는 분노하지 않고 어느 이병헌의 연기처럼 눈물을 머금은 눈빛만 있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유진 초이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연기는 영화에서 보다 드라마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울인>, <아이리스>에서도 이병헌은 비극적 운명과 투쟁하는 거친 모습보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순애보를 더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클로즈업에 강한 연기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액션배우로서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액션 자체를 잘 하기보다 액션 배우이면서 동시에 정적인 감정 연기가 가능한 것이 그의 장점이다. 배우는 관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면서 감독의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또한 스타는 대중이 꾸준히 동일시하고자 하는 쾌락과 욕망의 형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병헌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회소성과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런 이병헌의 특징이 사회와 어떻게 연관 되어있는지 혹은 대중이 이병헌을 통해서 어떤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지에 살펴보지 않았다. 게다가 이병헌의 연기력이나 연기 방법론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았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배우론의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관객들이 영화 선택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요소는 배우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며 수용자론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일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객관성을 최대한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배우론이라는 영역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각종 저널과 다른 배우의 연구를 참고하며 할 수 있는 한 논리적 근거를 모으려 노력했다. 인문과학에서 객관적 판단만 가능 한 영역만 연구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문화'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문화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인문과학에서 연구는 한 연구자의 주장과 또 다른 연구자의 주장들을 맞부딪쳐 현상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본 연구를 기초삼아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더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한다.

28) 서인숙, Op. cit, pp118-119

29) 장영엽, [아시아계 배우들의 활약②] 할리우드 아시아계 배우들의 역사, 1920년 하야카와 셋슈 ~ 2018년 존 조, 씨네21, 2018-09-05

참고문헌

1. 김시무, [스타 페르소나], 아모르문디, 2018
2. 배상준, [장르영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3. 존 벨트, 이형식 역, [미국영화 미국문화], 경문사, 2008
4. Stephen Prince, [Movie and Meaning : An Interoduction to Film], Allyn and Bacon, 1997
5. 강성률, 한석규 배우론, 씨네포럼, 2018. 4, vol. 29
6. 김종국, 브레히트의 게스투스 영화연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논문지, 2018. 1, vol.12, No.1
7. 서인숙, 배우 이병헌의 페르소나 연구, 기호학연구, 2016, Vol.47
8. 어일선, 정민영. 배우 박중훈의 연기 패턴 분석 및 인물 표현 방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12, Vol.13, No.12
9. 이상태,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7. 7, Vol 14
10. 김연주, 영화 매체적 특성에 따른 연기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 최원호, 텔레비전 매체의 클로즈 업(close-up) 영상기법 특징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2. 고승일, 연합뉴스, 美 구한말 한반도에 4차례 군대 파견, 2010-03-04
13. 박영주, 존 추 감독 "이병헌, 한국의 톰크루즈...아시아 배우 할리우드 진출 길 열어", 중앙일보, 2012-12-13
14. 이예지, [이병헌] 우직하게, 또 영민하게, 씨네21, 2015-11-23
15. 이인혜, 김은숙 신작에 '이병헌-김태리' 캐스팅된 이유, 위키트리, 2017-07-06
16. 장영엽, [아시아계 배우들의 활약②] 할리우드 아시아계 배우들의 역사, 1920년 하야카와 셋슈 ~ 2018년 존 조, 씨네21, 2018-09-05
17. 정덕현, 김은숙 작가, 왜 논란 감수하고 이병헌을 캐스팅했나, 엔터미디어, 2017-06-24
18. 최형익, [왜냐면] '미스터 션샤인'과 구한말 한미관계 왜곡, 한겨레, 2018-08-20
19. <https://news.nate.com>
20. <http://www.nielsenkorea.co.kr>